112 신고 전화 폭주

‘수원여성 살해사건’ 이후…광주경찰 하루 1000건 육박

일반 상담까지 늘어 경찰력 낭비 우려

지난 4월 ‘수원 조선족 20대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뒤 112 신고 전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전화는 사건 신고는 물론 일반 상담까지 덩달아 늘어나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 사건과 관련 경찰 112 신고 및 수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진 지난달 28일 이후 112 신고 건수는 1만51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만1956건에 비해 36%나 증가했다. 하루 평균 747.2건에 불과했던 112 신고건수가 945.8건으로 무려 2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수원 사건 이후 가출신고는 물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에 대한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범죄발생률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만 턱없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대응이 힘든 신고도 함께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상황이 다급하지 않은 미출동 신고건수의 증가폭은 훨씬 컸다. 지난달 1일부터 5월13일까지 미출동 건수는 5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나 늘었다. 신고 사례를 보면 ‘가족이나 친지의 행방이 묘연하다’, ‘새벽에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 등 ‘막연한’ 신고에 택시요금 시비 문제나 전기 및 수도 관련 등 경찰과 무관한 신고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수원 사건 이후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한층 긴장된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엔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슨 일 있겠습니까.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답변하기도 했고, 실제 무사히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순찰차 출동과 함께 위치 추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가 활성화 된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현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신고 전화 회선과 출동 경찰 수는 한정돼 있는데 잦은 신고와 출동으로 자칫 긴급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출동이 늦춰질까봐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112 허위신고, 장난전화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입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허위신고는 4900여 건으로 전체 8만5000여 건 가운데 5.8%를 차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과학고 내년 신입생 전원

창의·잠재력 보고 뽑는다

광주과학고가 2013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뽑는다.

광주과학고는 15일 2013학년도 신입생 전형계획을 확정, 신입생 80명(일반 64명·사회적 배려대상자 16명)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2013학년도 전형의 특징은 창의·잠재력이 뛰어난 과학영재를 뽑기 위해 지원자격에서 성적제한을 폐지, 수학·과학 학업적성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혔다는 점이다. 면접시험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교과지식을 묻는 질문을 없애고 창의력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광주과학고는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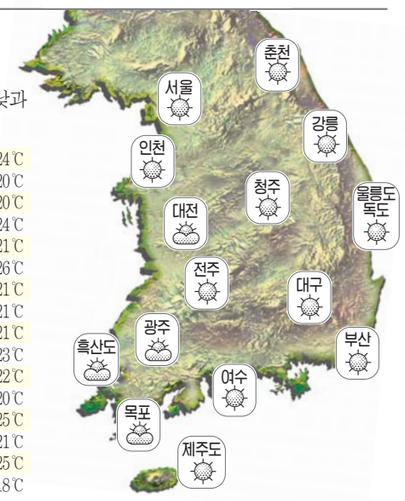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8분 해짐 19시 30분 달뜸 02시 32분 달짐 15시 20분

일교차 커요

가끔 구름이 많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광 주	구름많음	13/24℃
목 포	구름많음	13/20℃
여 수	구름조금	15/20℃
나 주	구름많음	12/24℃
완 도	구름많음	14/21℃
구 례	구름많음	11/26℃
강 진	구름많음	13/21℃
해 남	구름많음	11/21℃
장 흥	구름많음	12/21℃
순 천	구름많음	14/23℃
영 광	구름많음	12/22℃
진 도	구름많음	12/20℃
전 주	구름조금	12/25℃
군 산	구름조금	12/21℃
남 원	구름조금	10/25℃
흑산도	구름많음	12/1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주의	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11:02 23:42	04:10 16:33
여수	06:09 18:38	12:13 00: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날 씨						
최저/최고	14/20	13/27	13/27	15/24	15/26	15/27

재활용 헌옷들 15일 광주시 북구새마을회원들이 동림동 산동교 하천부지에서 열린 재활용 의류 모으기 경진대회에서 수집된 헌옷을 분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 재개발

1구역 4만4268㎡ 717세대 규모 시행

광주시 남구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월산동 1구역의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월산동 363-1번지 일원 대지 4만4268.7㎡ 면적에 지하 2층~지상 28층의 7동 717세대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감도〉

남구는 모든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 지상은 산책로와 광장 등으로 꾸미고 최첨단 LED 조명과 자가발전 승강기 등을 갖춘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75%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후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남구는 월산 1구역을 시작으로 월산2구역과 서동1구역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식 조합설립을 위해 오는 6월1일 월산초교 대강당에서 주민창립총회를 개최, 사업시행자 및 정비업체의 인준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사와 정비업체를 최종 확정 후 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모든 의료기관 응급실 등 환자 권리·의무 게시해야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쓰여진 게시물을 내걸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도록 구체적인 게시 내용과 방법, 장소가 담겼다.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사고 5~6월 발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야외활동이 많은 5~6월에 전체 식중독의 5분의 1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는 충분히 익힌 상태에서 5도 이하에서 냉장보관하거나, 60도 이상에서 온장보관해야 한다.

/연합뉴스